

국제교육도시 송도 “서바이벌 시대 도래”

발행인 창간사

송도국제학교 개교 눈 앞...내국인 학생 중심으로 운영 가능성 높아
 외국 대학 캠퍼스 송도 입성...국내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송도경제자유구역이 국제교육중심지로 부각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송도국제학교 조감도.

송도국제학교 개교와 외국 대학 캠퍼스 송도 입성이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국내 학교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교육분야 정책방안이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촉진해야 하는 당위적 내용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교육을 비롯한 10대 유망 서비스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야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운영(’09.2-4월)하여 마련된 내용이다.

교육분야는 현장의견 등을 청취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고 공개토론회(3.19)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교육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번 내용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재학생의 30%(개교5년 이후 10%)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 이내로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입학 인원에 관계없이 정원에 정해진 인원을 내국인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 부족 등으로 개교 여부가 불투명하던 국내 최초의 국제학교인 송도 국제학교(ISS) 개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급년 9월이면 문을 열 전망이다.

12일에는 송도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을 맡을 외국교육기관 총괄 교장이 선임됐다. 이날 선임된 총괄교장은 판의 세인트 존스 스쿨(St. John's School) 등 국제학교에서 15년간 교장직을 지내고 22년간 국제학교를 운영해온 미국인 조지 벨슨이 선임됐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송도국제학교는 개교 첫해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업무단지와의 2km 가량 떨어진 곳에는 ‘글로벌 캠퍼스’도 조성된다.

이곳엔 ‘연세대 국제화 복합단지’가 2012년경 개교하며, 이에 발맞춰 10개 내외의 해외 대학이 합류한다.

입주 예정 대학은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립대(NCSU)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미주리대, 남캘리포니아대(USC), 듀크대 경영대학원(MBA), 미주리대, 라테란대, 휴스턴대, 퍼듀대 등이다.

정부의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대학의 유치는 한국 안에서 외국인들의 교육여건 확충을 통해 외국경제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송도를 유학대체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를 달고 있다.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이번에

한시적으로 규정을 변경한 것이 외국인 입학인원이 예상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인천의 경우 국제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 교육인구는 100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국인의 비율을 높인 것이지만 자칫 ‘외국어학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길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다.

또한, 외국 대학의 캠퍼스 설치 문제도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거론된 부분이지만 국내 출신인구 감소의 누적으로 교육인구 역시 줄어들고 있고, 현재 일부 대학의 경우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경우 국내 우수 인재들의 외국대학 캠퍼스로 유입이 잦을 것으로 전망돼 국내 일부 대학의 경우는 완전히 도태될 우려도 있다.

아차피 경쟁력 없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명제로 다가왔다면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쟁력 없는 대학을 평가해 통폐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감안할 때, 평가의 기준을 단순히 현재에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외국대학 캠퍼스가 들어왔을 경우까지 생각하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대학 역시 학생 모집과 학교 특성화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자체 경쟁력 강화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교육 현안 소통의 장 마련할 것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봄날의 단비처럼 날로 적박해지는 교육 현실 속에서 스승과 제자,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라는 4대 교육 주체에게 현실 교육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대안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각 교육 주체와 교육계 종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그것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모아 본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인성을 가다듬고 개개인의 창의성을 계발하여 미래시대를 이끌어갈 창조적 지도자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교육 본연의 지표는 각 교육 주체가 가지는 공통의 목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 교육 주체 사이의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된 오해와 불신, 각자의 처한 상황의 상이함으로 비롯하는 갈등과 충돌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유하는 격랑 속 나뭇잎

처럼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충돌은 갈등으로부터 비롯되고, 갈등은 오해로부터 비롯되며, 오해는 불신에 기인하고 불신은 서로에 대한 대화의 부족 내지는 단절로부터 태동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소통의 단절이라는 현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이러한 어지러운 교육 현실 속에서 현실을 가감 없이 직시하며 모든 불신과 갈등의 근원인 소통의 단절을 해소하는데 본지가 가진 모든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를 불신하고, 오해하고 갈등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한 오해와 불신, 각자의 처한 상황의 상이함으로 비롯하는 갈등과 충돌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유하는 격랑 속 나뭇잎

본지는 봄 날 햇살 같은 따뜻한 감성으로, 어린아이의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순수의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지는 가을 아침 코끝을 스치는 서늘한 이슬이, 겨울寒风 속에서도 꽃향기 가득한 대지의 기상으로 현실 속 문제에 대한 鮮明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의 노력이 현실 교육계의 현안을 해소하는데 한 없이 부족하고 보잘 것 없었으나 교육 주체 간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고 이를 통하여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창간 당시의 初心을 잊지 않고 더욱 盡心竭力하는 마음과 자세로 교육 각 주체에게 다가갈 것을 다짐하며, 독자 제위의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발행인 홍성민>

저탄소 녹색성장 대학도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는 국내 대학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그린캠퍼스 총장선언대회’를 13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 그린캠퍼스 협의회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친환경 캠퍼스 조성, 지속가능발전 관련 과목 확대 및 지역사회 녹색문화 확산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본지 지령 2호는 6월 1일자로 발간됩니다. 2호부터는 매주 독자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 교육연합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YEOSAN Law firm

전문가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드려, 늘 고객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여산」이 될 것입니다.

공공업무 | 회사법률·파산·회계 | 세무·보험관련 상담업무 | 조세 | 노동 | 부동산 | 소송·중재

여산의 전문가들은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할 열쇠같은 역할이 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여산은 2004년 4월, 창간이후 5년에 이어가며 30년 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로 전국에서 제1의 법률 전문 업체로 성장하여, 내외에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천 법률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산의 전문가는 최우선적인 사고와 자세를 통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법·2법·3법 대학·공용기관·사회단체·대기업·중소기업 등에도 최고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산은 이러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드려, 늘 고객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공공업무 | 회사법률·파산·회계 | 세무·보험관련 상담업무 | 조세 | 노동 | 부동산 | 소송·중재

법무법인 여산 [與山] 공중사무소 전화. (032)861-5230 / 팩스. 861-5251

신대일 변호사 (032) 861-0400~1 | 정지영 변호사 (032) 861-7911~2 | 유영성 변호사 (032) 861-7122~4 | 이승원 변호사 (032) 861-0400~1